

中長期 産業展望과 政策方向

1. 問題提起

- 경제 주요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정이 점차 구체화되고 외환위기 이후 급박했던 경제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위기극복 이후 우리경제의 진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경제위기를 전후로 한국산업의 경쟁력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가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위기극복 후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음.
 - 특히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나, 우리 산업의 경쟁력 및 발전잠재력 등 실물경제기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설득력있는 견해는 아직껏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본 자료에서는 세계화와 기술혁신으로 대변되는 세계경제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우리경제의 현 위치 및 발전가능성에 대한 좀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인식의 틀을 바탕으로 위기극복 이후 우리 산업의 구조변화와 발전방향 및 이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2. 對外産業環境의 變化

- 세계는 지식의 효율적인 생산과 유통을 위한 시스템간의 경쟁, 즉 경제주체(기업, 금융, 정부 등)들의 혁신능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지식의 체계적 생산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技術革新시스템(<Box 1>참조)간의 경쟁에 돌입하고 있음.

- 기술혁신시스템간 경쟁시대에서 산업환경의 변화는 高技術 産業群(전기·전자, 자동차, 정밀화학·의약 등)에서 거대한 다국적기업들의 세계시장 寡占化 傾向, 그리고 중소기업 중심의 中技術 産業群(섬유·의류, 산업용 기계 등)에서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흐름으로 집약됨.
- 고기술 산업군에서는 다국적기업이 企業內 世界分業을 확대하면서 세계의 革新中心地를 연결하는 글로벌 R&D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해가고 있음.
 - 다국적기업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비용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R&D·조달·생산·판매 등에 관련한 最適立地를 세계적 차원에서 선정하고 그 지역내에서 분업체제를 구축
 - R&D는 기본적으로 본국활동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혁신중심지를 연결하는 글로벌 R&D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하여 해외R&D가 급증
-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R&D·調達·生産 등에 관련한 세계화추세로 인하여 개별 국가경제가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地域間 貿易의 비중이 줄어들고, 地域內 貿易이 지속적으로 증가

<表 1> 지역간·지역내 무역의 변화추이

(단위: %)

	1981-85년				1991-95년			
	EU	NAFTA	아시아	세계수입	EU	NAFTA	아시아	세계수입
EU	18.1	3.4	1.9	34.0	24.1	3.3	3.4	3.80
NAFTA	3.6	7.1	3.5	18.5	3.4	7.3	4.4	17.8
아시아	2.3	5.3	6.4	18.2	4.5	6.8	12.0	26.0
세계수입	35.7	20.9	17.6	100.0	39.1	20.0	23.8	100.0

주: 아시아는 중동을 제외한 일본, 중국, ASEAN, NIES 등 38개국임.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각년도.

- 국제경쟁에 노출이 심화되고 있는 중기술 산업군(중소기업 중심)은 특정 지역에 地域革新시스템(<Box 2> 참조)을 구축하여 差別性과 多樣性의 창출로 경쟁우위를 확보해 가고 있음.
- 선진국에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심의 中技術 産業群은 地域革新시스템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한 후 해외로 활동을 확대하는 추세
- OECD보고서에 의하면 세계화에 적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25%, 세계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25~50%로 추정. 국제경쟁에 노출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은 40%를 하회하며 장래에는 20%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3. 國內産業의 構造變化

가) 發展現況

- 國內産業構造는 중화학공업의 급속한 성장과 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확대에 양적 측면에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과 유사하나 技術革新, 知識集約化(<Box 3> 참고) 및 高附加價值化 등 질적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음.
- 선진국과 수출구조를 비교하면 전기·전자, 통신장비, 철강 및 섬유·의류·피혁제품의 수출비중이 높고, 기계, 화학제품, 자동차 및 정밀·과학기기는 낮으며, 특히 기계와 화학제품에서는 대규모 무역적자를 내고있는 실정

<表2> 주요 先進國과 韓國의 輸出構造(1995)

(단위: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
화학제품	10.3	6.0	10.9	12.8	10.7	5.4	6.5
고무·프라스틱	1.6	1.8	2.3	2.6	1.9	2.6	2.0
의약품	1.3	0.4	2.1	2.8	3.5	1.7	0.2
철강·비철금속	3.2	5.7	7.1	6.9	5.3	8.0	7.6
일반기계	15.3	18.8	19.1	12.1	13.8	19.6	6.0
전자·전기기기	10.9	17.3	8.8	7.7	8.6	6.5	23.8
컴퓨터·사무기기	7.5	8.7	2.7	3.6	8.3	2.4	4.1
통신장비	3.9	6.6	2.5	2.5	3.9	1.2	7.4
자동차	9.8	18.1	17.2	12.4	8.9	8.8	8.4
항공기·선박	5.5	2.7	2.7	6.3	3.2	1.4	4.9
정밀·과학기기	4.8	5.5	3.7	2.7	4.2	2.2	1.4
섬유·의류·피혁제품	3.2	1.9	5.1	6.3	5.2	18.3	17.5
기타	22.5	6.6	15.7	21.2	22.5	22.0	10.0

자료: OECD, Foreign Trade by Commodities, 1995.

- 선진국은 지속적인 개량과 혁신에 의하여 新商品이나 差別化된 상품을 수출하여 高附加價值를 실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中附加價值 상품의 수출이 주종을 이루고 일부 고부가가치 상품도 수출하지만 核心部品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우리 기업은 事業構造, 核心力量, 資本蓄積 및 世界化에서 선진국 기업과 큰 격차가 있으며, 혁신기능의 집적과 혁신시스템의 完結性에서도 선진국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및 지식의 격차를 단순비교하여 국내산업의 장래를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선진경제권 진입을 지향하는 국내기업의 기술개발성과를 감안할 때 주요산업이 지식집약화과정을 거치면 선진국형 고부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
- 産業技術은 비약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며, 技術力量의 강화는 累積的

學習過程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선진국수준에 접근하며, 연구개발은 模倣開發 → 商業化研究 → 應用技術研究 → 源泉技術研究 → 基礎技術研究로 단계적으로 확장됨.

-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술발전을 선도하는 주요기업들은 80년대말에 模倣的 研究開發戰略에서 防禦的 研究開發戰略으로 전환하였고, 90년대에 高技術 부품과 신제품의 자체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빈약한 국내연구기반을 극복하기 위하여 海外研究開發, 선진기업 인수에 의한 技術獲得, 선진국 기업과의 戰略的 提携 등 研究開發의 世界化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해외연구소가 급증하고, 美國特許의 등록에서 세계 제8위(96년)로 부상했으며, 고기술 신제품개발의 성공사례가 증가하고 신제품개발에서 선진국기업과의 時差가 단축되는 등 혁신성파가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성과가 반영되어 선진국기업과의 戰略的 提携가 90년대 중반에 급증했음.

<表3> 外國企業의 在美研究所 現況(1994)

(단위: 건)

	日本	英國	獨逸	프랑스	스위스	韓國	和蘭	스웨덴	기타
컴퓨터	22	-	4	-	-	7	3	-	3
소프트웨어	25	6	4	3	-	1	1	-	1
半導體	19	2	3	-	-	10	3	-	-
情報通信	14	2	4	2	1	1	-	2	3
光電子	11	2	3	-	-	-	-	1	3
HDTV·電子	33	10	9	4	5	3	4	-	3
醫藥·生化學	22	23	18	11	17	1	5	5	9
化學	23	19	28	17	10	-	4	-	8
金屬	5	3	1	4	1	-	-	1	-
自動車	34	1	11	2	-	3	-	2	-
機械	7	4	2	3	-	-	-	6	-
制御機器	1	23	3	5	4	-	3	1	-
食品·雜貨	7	19	6	2	6	-	5	1	-
계	219	109	95	52	45	26	26	22	41

자료: National Science Foundation, 1996.

나) 산업구조 전망

- 국내산업구조는 단기적으로 내수의존이 높은 서비스업과 경공업의 비중은 줄어들고, 수출증가세가 예상되는 반도체, 통신기기 등의 전자·전기 산업과 조선,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한 **重化學工業**의 비중이 높아질 전망
 -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內需**의 회복이 지연되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2~3년간의 경제성장은 **輸出成果**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나 기업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간 사업교환, 외국인 직접투자 전망 등이 불투명하여 수출신장세가 회복되는 **時期**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움.
 - 국내의 주요산업 중 주력시장이 선진국인 반도체, 이동통신기기, 자동차, 조선 등은 수출전망이 비교적 양호하나 석유화학, 기계류, 전자부품, 직물 등은 아시아 금융위기 영향에 따른 개도국의 경기침체로 수출증가가 불투명
- 중장기적으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과정은 세계시장의 경쟁구도, 기술변화의 특성, 핵심역량의 축적속도 등에 따라 산업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임.
- 전기·전자와 자동차 등에서 일부 선도적인 국내기업의 다국적 기업화로 해외생산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신장율의 둔화가 예상됨.
 - 전기·전자와 자동차에서 해외연구개발과 전략적 제휴에 의한 해외과학기술자원의 활용으로 국내기업의 핵심역량이 축적되고 이를 기반으로 다국적화가 상당히 진전될 전망
 - 중공업에서 주력사업인 조선은 상당기간 경쟁우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사업인 발전설비·중전기, 건설중장비·운반하역기기, 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설비제작 등은 자체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동시에

선진국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설계기술의 자립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됨.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주변사업이 핵심역량을 축적하여 사업비중이 증가하면서 조선사업의 비중이 저하할 것으로 예상

- 기초과학의 연구기반이 중요한 정밀화학·의약에서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현저하여 주로 선진국 기업의 국내진출에 의한 산업기반의 확충이 예상됨.
 - 기계, 정밀화학·의약 등에 있어서 선진국 다국적 기업의 국내진출로 이들 산업에 대한 지식집약화가 촉진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국내에 아시아지역을 위한 기술개발 거점화가 이루어질 경우 상당한 수입 대체와 수출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 경쟁열위에 있는 석유화학, 섬유 등 일부 산업에서는 동남아국가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한계기업의 해외생산 등으로 수출감소가 예상
 - 범용소재 중심의 석유화학에서는 주요시장인 개도국의 자급률 향상으로 수출이 감소하며, 섬유산업에서는 동남아국가들과의 경쟁심화로 직물수출이 감소할 전망
 - 또한 패션산업의 경쟁력확보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고용비중이 현저히 감소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패션산업의 경쟁우위가 배양되지 못하면 수입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전반적으로 수출주도형 성장이 후퇴하고, GDP대비 수출·입의 비율이 낮아지는 성장패턴으로의 점진적인 이행이 예상됨.
 - 그 결과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감소하고, 경제서비스화가 가속되면서 서비스부문의 확대가 예상되지만 향후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혁신지향적인 제조업이 될 것임.
- 서비스업 부문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물론, 실물생산부문에 비해서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음.

- 서비스산업 후진성의 원인: 제조업중심의 성장전략과 서비스업의 경제성장 기여도에 대한 인식 부족, 과도한 규제에 의한 경쟁의 부재 및 혁신유인 부족(금융, 운수·통신 등), 수요자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시장의 미형성(사업서비스, 개인서비스 등), 서비스 공급측의 비즈니스마인드 부족(음식·숙박, 개인서비스 등),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권리·의무 등 거래에 대한 규칙의 미정립
- 우리경제의 서비스화(<Box 4> 참조)추이로 인하여 향후 서비스부문의 시장확대가 예상
 - 서비스업의 발전은 국가사회의 전반적인 성숙도에 비례하는 만큼 단기간내에 획기적인 효율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움.
 - 생산자 관련서비스(금융, 사업서비스업 등) 및 첨단부문의 서비스(통신, 대형유통점 등)는 경영혁신, 제도개혁 등에 따라 빠른 속도로 발전될 전망
 - 음식·숙박, 개인서비스, 보건·사회복지 부문은 전반적으로 수요가 확대하는 가운데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대응하여 점진적으로 발전

4. 産業政策의 基本方向

- 우리의 산업정책은 전자,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에서 혁신활동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혁신정책과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에 유리한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중소기업지원정책이 근간을 이룸.

<기술혁신정책>

- 기술혁신정책은 기술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음.

- 산업의 생산효율과 연구효율을 향상시키는 시험연구기관의 下部技術研究, 경쟁의 전단계인 源泉技術의 共同研究, 기초공학의 연구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져 왔음.
- 과학기술의 기반과 자본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선진국 수준의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는 불가능므로 국내산업의 발전단계에 적합한 기술혁신정책이 요구됨.
- 한정된 研究開發財源을 가지고 기술혁신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쟁우위의 확보가 가능한 기술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요구됨.
- 기술혁신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국내에 세계시장의 革新中心地를 구축하는 것이나, 이것은 장기간의 기술진화과정이 필요하므로 1차적으로는 미국계·유럽계 다국적기업이 東아시아의 地域技術센터를 한국에 배치하도록 유리한 立地條件을 구비하는 것임.
- 미국계·유럽계 다국적기업의 지역기술센터가 국내에 입지하면 技術革新體制의 구축을 위한 국내자원의 투입이 절약되고, 기술개발에 따른 위험부담도 경감할 수 있으며 세계경제의 혁신중심지에서 수행되는 기초연구·원천기술연구와의 연계도 강화할 수 있음.
- 또한 다국적기업의 지역기술센터에 고용되는 우리의 연구자가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연구능력을 배양할 수 있음. 또한 혁신체제의 구축에서 가장 접근이 어려운 과제인 組織資產의 축적에서 시행착오의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음.
- 다국적기업의 지역기술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시장을 겨냥한 제품개발에 유리한 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 應用研究와 商業化研究를 수행하는 우수한 연구인력의 공급을 확대하

고,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연관산업의 혁신기능을 집적하는 동시에 혁신활동의 상승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야함.

- 기초과학의 국내연구기반도 단계적으로 확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초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우수연구집단을 중심으로 대학·연구기관·기업중앙연구소(기초연구를 부분적으로 수행)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기초연구과제가 자율적으로 도출·기획·관리·평가될 수 있는 메카니즘이 발전되어야 함.

- 이에 이러한 요건들이 마련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지원이 필요

<중소기업정책>

- 중소기업정책의 기본방향은 혁신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비중을 높이고 이들 혁신지향적 기업의 주도로 주변 중소기업들과 지역내 분업체제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집단적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에 주력
- 중소기업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단순하청생산에서 벗어나 독자적 제품기획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이들을 뒷받침해 주는 전문 생산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다수 배출되어야 함.
- 기업가정신이 강렬한 혁신지향적 중소기업의 특성은 관료주의적 경직성을 갖는 전국적 조직의 금융기관이나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를 받는 지원기관으로서 식별하기 어려움.
- 따라서 지원시책의 지방분권화가 필요하고 지방정부 및 지역내 지원기관의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행정개혁이 요구됨.
- 첨단기술형 벤처기업은 과학기술의 수준이 월등히 뛰어나고 국내시장이 광대한 미국 특유의 현상이므로 우리의 경우 산업발전단계를 고려하여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한국적 벤처기업의 육성이 필요

- 국내에서도 근년에 고성장 벤처기업이 증가하고 중앙정부, 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의 創業支援도 확충되고 있으나 양적인 증대보다는 질적인 향상이 요구됨.
- 장래가 유망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민간의 벤처투자중심으로 운용하고 정부지원은 기술집약적 기업들의 창업 활성화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임.
- 한편, 제조업의 고도화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하는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및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추구하기 보다는 개방 및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점진적인 구조고도화 전략을 모색
 - 폐쇄적 시장구도가 유지되는 한 서비스산업의 획기적 발전은 기대하기 곤란하므로 과감한 시장개방과 경쟁촉진적 규제개혁으로 새로운 시장환경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
- 유통, 금융, 운수·창고·통신, 사업자서비스 등은 하드웨어 개선, 경영기법 혁신, 제도개혁 등을 통해 단기간내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 가능하며,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기업의 진출은 이러한 생산성 향상을 가속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
 - 외국업체의 국내진출로 인한 국내업체의 퇴출 및 이에 따른 고용감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특히 유통부문) 단기간에 시장개방을 통한 고용창출은 기대하기 어려움.
 - 장기적으로 이들 업종의 성격 및 고용창출 능력은 제조업부문의 지식집약화 정도에 달려 있으며, 따라서 제조업부문의 고도화와 유리된 이들 부문의 독자적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
 - 또한 경제전체의 구조조정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시장, 고용 등 각

종관련정보의 확산기능을 제고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충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산업정책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는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치확대 및 외국인기업이 국내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정으로 투자절차의 간소화 및 인센티브의 확충이 이루어져 외국인 투자를 위한 제도적 여건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획기적 증대를 유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
 -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는 외채불안의 해소와 수출신장의 회복에 기여하는 동시에 外換危機의 再發을 방지하는 經濟體質의 개선에서도 一翼을 담당할 것임.
-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해서는 국내의 구조개혁이 미진한 기업, 정부부문의 개혁가속화 및 효과적인 입지정책과 더불어 마케팅전략이 필요
 - 다국적기업이 투자결정시 시장규모/천연자원 뿐만 아니라 기술, 인력 및 SOC등 창조적 자산(created asset)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므로 입지정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
 - 기업 및 지자체 단위의 IR(Investor Relations; 투자자를 대상으로 펼치는 홍보활동)을 지원하여 입지로서의 이점을 대외에 적극 홍보하는 전략을 강구하고 해외공관 및 KOTRA 해외사무소의 개편 및 업무조정을 통해 공격적 유치활동을 전개할 필요
 - 정부기능을 통제위주에서 봉사위주로 전환, 노동규율의 확립,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유인(지방세법의 개정 등) 제공 등에 노력해야 함.

<Box 1> 기술혁신시스템

후기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은 「기술」경쟁에 돌입하고 있음. 여기서 「기술」은 산업기술로 대표되는 전통적 과학기술 뿐만 아니라 기업, 금융, 정부 등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 경제주체들이 지속적으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식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사용하게 하는 광의의 기술을 의미함. 이러한 광의의 기술이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으려면 한 부문에서 생산된 지식이 다른 부문으로 신속히 확산되고 다른 부문에서 재생산된 지식이 다시 본래 부문으로 전달될 수 있는 효율적인 사회구조의 형성이 필요함. 결국 기술경쟁은 지식의 효율적 생산과 유통을 위한 시스템간 경쟁이라고 볼 수 있음.

광의의 기술혁신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들이(정부,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룰 때 상호작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음. 그러나 각 혁신주체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매달려 갈등을 빚게 될 경우 시스템 구성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후기산업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은 정책적 유인을 통해 기술혁신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Box 2> 지역혁신시스템

특정지역에 산업연관성이 높은 기업들(주로 중소기업들)이 군집하여 하나의 기술혁신시스템을 이룰 때 지역혁신시스템이라고 불리우며 그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소재, 부품, 기계설비, 디자인, 유통업 등 연관산업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제품의 혁신·개량에 기여,
- 생산단계별로 전문화하여 혁신능력을 보유하는 중소기업들이 제품의 혁신·개량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형성,
- 지역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기업서비스(기술자문, 연구개발수탁, 시스템하우스, 소프트웨어하우스, 경영자문, 마케팅자문, 디자인하우스, 광고대행, 법률자문 등)가 발전하며, 조합조직을 이용한 공동사업도 활발해짐.
- 지역내 대학과 연구기관이 지역산업의 혁신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기업간의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지역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을 연결하는 다양한 중개기관의 설립·운영을 지역정부와 지역산업단체가 지원

<Box 3> 知識集約化

소비자들의 다양해지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제품개발·구매조달·생산·판매 등 기업내 각 분야별 가치창출 과정(value chain)에 지식의 투입비중을 높이는 생산활동을 말함. 지식집약화는 상품가치를 높여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게 됨.

전자, 생명과학, 신소재, 항공우주 등 이른바 미래형 첨단기술산업이 발전하면 다른 주요산업에 높은 수준의 기술과 중간재를 공급할 수 있어 산업전반에 걸친 지식집약화에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이들 산업의 고용창출 기여는 매우 낮으며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높은 실패위험 때문에 기존산업의 지식집약화가 완성된 일부 선진공업국에서만 성장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

아직 후발공업국 수준에 있는 국내산업은 기존산업의 지식집약화 여지가 많으므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Box 4> 경제의 서비스화

경제발전에 따라 레저, 관광, 문화활동 등 전통적 부문의 소득탄력적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기존의 제조업체 조직에 속해 있던 상품기획·산업디자인·기술정보·광고·시장조사 등 전문서비스 활동이 개별 서비스업체로 독립하게 되어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대되는 현상을 말함.

서비스산업의 성장으로 고용이 확대되고 서비스부문의 생산성도 향상되어 소비생활의 질적 개선과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하게 됨.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제조업을 우선시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금융자원 배분에서 소외됨은 물론 서비스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도 높지 않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8년부터 제조업의 생산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90년대 전반에는 전문서비스부문의 성장이 높아져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있음.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낮고 제조업과 비교한 생산성도 상대적으로 더 낮아 향후 서비스부문의 육성은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것임.

(KDI 장기비전팀)